**사립학교 자기소개서**

직무 : 특수체육교사

|  |
| --- |
| 1. 성장과정 |
|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. 존경하는 부모님과 우애 깊은 형제들 사이에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. 학창시절 활달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. 항상 자율적인 생활을 강조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또래 친구들보다 자유분방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때론 말썽을 피우기도 했지만 큰 사고는 치지 않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 현재는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중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. 저 또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율성을 강조하고, 그 속에 선택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자녀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. |
| 2. 성격상의 장․단점 |
| 저는 주도 면밀한 성격입니다. 항상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어떤 일을 맡겨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저는,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동료교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.   하지만 가끔은 너무 꼼꼼한 나머지 제 자신을 피곤에 빠트리곤 합니다. 저는 이런 단점을 업무처리 능력으로 승화시키고, 평소 생활에 있어서는 최대한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|
| 3. 취미 및 특기 |
|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.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 새로운 운동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운동에 탁월한 소질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. 운동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평소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, 특히 긍정적인 사고를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  농구와 스쿼시는 제가 특히 자신 있어하는 종목입니다. 농구처럼 신체 전부를 활용하는 운동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. 스쿼시 또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기종목이라 시간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자주 하는 운동입니다. |
| 4. 좌우명 및 장래 Vision |
| ‘언제나 남들보다 더 노력하자.’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향해 노력을 기울입니다.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언제나 더 노력하려고 스스로를 독려합니다.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보다는 저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.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제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. |
| 5. 연수경력(여행경험) 및 사회봉사활동 내용 |
|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주변의 결손가정을 찾아가 그들의 일손을 거들어줍니다. 지금까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밖에 찾아가지 못했지만, 앞으로는 시간을 내서라도 방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직까진 마음에 비해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동안의 봉사활동으로 느낀 나눔의 기쁨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. |
| 6.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|
|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존경합니다. 그 이유는 대구의 작은 상회였던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 시킨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명언 가운데 ‘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.’라는 문구가 있습니다. 이 말을 몸소 실천해 보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. 비록 이건희 회장만큼 커다란 부와 명예는 얻지 못할지라도 제가 속한 조직에서만큼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|
| 7. 지원동기 |
| 누구에게나 꼭 맞는 옷처럼 천직이 존재할 것입니다. 저는 제 천직을 교사라고 생각합니다. 한때 교사의 꿈을 접어두고 광고회사에서 2년 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. 광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며 그 일에 성취감도 느끼곤 했지만 일하는 즐거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. 저는 과감히 회사를 나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. 특수체육교육을 전공하면서 잠시 접어뒀던 교사의 꿈을 다시 꿀 수 있었습니다. ‘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’고 했습니다. 꿈꿔왔던 교사가 된다면 저는 누구보다 즐겁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. 언제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|

****